

이야기 3: 다윗과 요나단

주제말씀
[사무엘상 20:4]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사울 왕이 사는 궁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용감한 다윗을 매우 좋아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만나자마자 친구가 되었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가장 아끼는 왕자님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 주고,
또 자기의 군복이랑 칼, 활, 띠를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영원히 제일 좋은 친구가 되자고 약속했어요.

친구가 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돌보아 주었어요.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였어요. 길 가에 나온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인 적은 수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적은 수만이라네!” 사울 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해서 화가 났어요. 점점 다윗이 미워졌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이 사실을 안 요나단은 다윗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버지, 왜 내 친구를 죽이려 하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정말 용감하고 충성스런 부하예요.”

사울 왕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네 말이 맞다.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어느 날 사울 왕은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연주 할 때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밤중에 도망을 쳤어요. 다윗이 없어진 걸 사울 왕이 알았어요.

사울 왕은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싫었어요.

그래서 무섭게 화를 냈어요.





화가 난 사울 왕은 부하들을 시켜 다윗을 뒤쫓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들의 큰 바위 곁에 숨겨 주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몰래 숨겨준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했죠.

“다윗, 아버지가 정말 널 죽일 것 같아. 빨리 도망 가.” 다윗과 요나단은 꼭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언제나 제일 좋은 친구였어요.



활동 1.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선물을 오려 다윗에게 입혀보세요.

준비물: 가위, 풀



완성된 그림





활동 2.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 어디에서 살았나요?

2) 사울 왕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었나요?

4) 오늘 배운 내용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 다음 성경구절을 읽고, 암송해 보세요. (사무엘상 20:4)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